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금융청, 보험업계 해외진출 관리감독 강화

□ 대형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, 일본금융청은 조만간 보험회사들의 해외사업 부문에 대해 중점 점검할 것으로 알려짐.

- 경기침체 및 일본보험시장 성장 정체로 도쿄해상홀딩스, MS&AD인슈어런스그룹 홀딩스, NKSJ홀딩스 등은 각각 38개국, 42개국, 23개국에서 M&A 등을 통한 해외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중임.
- 금융청은 보험업계의 해외진출 본격화로 해외사업과 관련된 위험들이 증가됨에 따라 해외진출을 가장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기 3사를 중심으로 해외투자 현황, 해외사업 관련 손실허용한도 측정, M&A를 포함한 향후 사업확장 계획 등을 현지 금융감독당국과 연계해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함.
- 이를 위해 본사의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해외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도 병행하기로 하는 한편, 전담팀 인력도 보험수리 전공 회계사, 변호사 등 10명의 실무 경험자들을 증원해 현재 4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확대할 방침임.

□ 이번 점검은 현재 금융청이 시행 중인 금융업계에 대한 해외사업 감독 강화책의 일환으로 향후 보험업계의 해외진출 관련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.

- 이번 점검에 앞서 금융청은 올해 여름부터 노무라홀딩스, 골드만삭스, JP모건, 모건스탠리 등 대규모의 국제거래를 하는 증권회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사업, 위험관리체제 등을 점검하는 등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.
- 전문가들은 보험업계가 자국보험시장의 성장 정체로 해외사업 진출이 불가피한 만큼, 이번 금융당국의 감독강화 조치는 인수 및 자산운용에 대한 위험 발생을 크게 경감시킨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.

(블룸버그뉴스, 10/11)